

제93회 아카데미상 시상식

# 윤여정, 韓 배우 최초 연기상

아카데미 시상식의 최고 영예인 작품상은 콜로이 자오의 '노매드랜드'가 차지했다. 기대를 모은 '미나리'의 윤여정은 이번엔 여우조연상을 안았다.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는 2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니온 역 등에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을 열었다.

주최 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화상 연결 위주였던 시상 방식을 최소화했다. 기존 오스카상 시상식장이었던 돌비 극장 외에 로스앤젤레스 유니온 역을 활용하고 유망 지역 출연자들을 위해 선 런던과 파리에 특선 무대를 마련했다.

지나해 '기생충'으로 작품상·감독상 등 4관왕을 휩쓴 봉준호 감독은 서울의 한 극장에서 감독상을 시상해 눈길을 끌었다.

'노매드랜드'의 자오 감독은 작품상과 감독상을 가져갔다. 감독상은 아시아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받았다.

남우조연상은 '더 피터'의 앤서니 홉킨스 여우조연상은 '노매드랜드'의 프랜시스 맥도먼드에게 돌아갔다.

영화 '미나리'는 이번 시상식에서 작품상·감독상·남우조연상(스티븐 연)·여우조연상(윤여정)·각본상·음악까지 총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지만 여우조연상 1개 부문 수상에 만족해야 했다.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 트로피를 들어 올린 윤여정은 기대를 제버리지 않는 유쾌한 수상 소감으로 박수를 받았다.

브래드 피트의 효명에 무대에 오른 윤여정은

영화 '미나리', 여우조연상 받아

봉준호 감독, 서울서 감독상 시상

작품상은 '노매드랜드' 수상 영예

"드디어 브래드 피트를 만났다. 우리가 영화를 찍을 때 어디 있었냐"는 농담으로 시작했다.

브래드 피트는 영화 '미나리'의 제작사인 A24를 설립했다.

윤여정은 "유된 남들은 제 이름을 여여라고 하거나 그냥 정이라고 부르는데, 제 이름은 윤여정이다. 오늘날은 여러분 모두 용서해드리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미나리' 가족들에게 감사사를 전한 윤여정은 특히 "정이사 감독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며 "우리의 선장이자 나의 감독이었다"고 추어올랐다.

이어 함께 후보에 오른 배우 모두에게 찬사를 보내며 "제가 어떻게 글렌 클로스 같은 대배우와 경쟁을 하느냐며 예우를 보였다."

그는 또 "경쟁을 믿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 사실 경쟁이란 있을 수 없다. 다 다른 역할을 다른 영화에서 해냈다. 그냥 운이 좀 더 좋아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누 아들이 저한테 인허라 나가라고 흥분한다. 아이들의 진소리 덕에 열심히 일해서 이런 상을 받았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영화 데뷔작 '화녀'의 김기영 감독에게도 특별한 감사의 인사

를 전했다.

윤여정은 한인 2세인 리 아이작 정(정이사) 감독의 자전적 영화 '미나리'에서 1980년대 미국 이민소주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손주들을 볼보러 한국에서 온 할머니 슈지를 연기했다.

한국 배우가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 시상식인 오스카에서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여정은 한국 영화 102년 역사상 최초로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은 한국 배우라는 기록을 쓰게 됐다.

다음은 제93회 아카데미상 수상자(작) 명단.

▲작품상=노매드랜드▲감독상=콜로이 자오(노매드랜드)▲여우조연상=프랜시스 맥도먼드(노매드랜드)▲남우조연상=앤서니 홉킨스(더 피터)

▲각본상=에머럴드 피넬(프리미싱 영 무먼)▲각색상=폴로리안 젤레르, 크리스토퍼 헬프만(더 피터)▲여우조연상=윤여정(미나리)▲남우조연상=다니얼 켈루아(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편

집상=사운드 오브 메탈 ▲촬영상=뱅크▲미술상=뱅크▲의상상=마 레이나, 그녀가 블루스▲분장상=마 레이나, 그녀가 블루스▲시각효과상=테넷

▲음악상=소울▲주제가상=파이트 포 유(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음향상=사운드 오브 메탈▲국제장편영화상=어나더 라운드▲장편 애니메이션상=소울 ▲단편 애니메이션상=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단편 영화상=투 디스턴트 스트레인저스▲장편 다큐멘터리상=나의

문어 선생님▲단편 다큐멘터리상=콜레트

/뉴시스



배우 윤여정이 25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로 최우수 여우조연상을 받은 기쁨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보컬그룹 SG워너비

(사진=스톤뮤직 제공)

## SG워너비, 가수 브랜드평판도 '역주행'

5위 랭크... MBC '놀면 뭐하니?' 출연

보컬그룹 SG워너비가 가수 브랜드평판 5위에 랭크됐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SG워너비는 참여지수 219만754, 미디어지수 53만4204, 소통지수 85만9188, 커뮤니티지수 90만118을 기록했다. 방탄소년단, 브레이브걸스, 아이유, 임영웅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SG워너비는 지난 18일 방송된 MBC '놀면 뭐

하니'에 출연해 완전체 라이브 무대를 선사하며 역주행 열풍을 일으켰다.

방송 이후 데뷔곡 '타임리스'를 비롯해 '내 사랑, 리라라', '살다가', '이리랑' 등 다수 히트곡들이 국내 주요 음원 차트 100위권 내에 진입했다.

또 '내 사랑', '타임리스', '살다가'의 과거 무대 영상은 각각 723만 488만, 485만 뷰를 돌파하며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순위를 석권했다. /뉴시스

## '봄 느낌 물씬'... 에일리, '러빙' 컨셉 포토 공개

내달 7일 발매

가수 에일리가 '러빙'의 컨셉트 포토를 공개했다.

26일 소속사 로켓스튜디오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오는 5월 7일 발매될 신곡 앨범 '러빙'의 컨셉트 포토 3장을 게재했다.

공개된 컨셉트 포토 속에는 봄처럼 화사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에일리의 모습이 담겼다. 따뜻한 햇살 아래 싱그러움 미소를 지었다. 여기에 청량미까지 더해졌다.

앞서 에일리는 '러빙'의 타이틀곡과 트랙리스트 등을 공개하며 컴백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앨범에 직접 작사에 참여한 완성도를 더하기도 했다.

오는 28일부터는 아트 필름, 뮤직비디오 티저, 하이라이트 메들리 등 다양한 컴백 프로모션 콘텐츠를 공개할 계획이다. /뉴시스



휘인, '레드' 공식 활동 종료

그룹 마미무 휘인이 13일 간의 솔로 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휘인은 지난 25일 방송된 SBS '인기가요'를 끝으로 신곡 '워터 컬러'의 공식 활동을 마쳤다.

휘인은 지난 13일 첫 미니앨범 '레드'를 발표한 뒤 국내외 음원, 음반 차트에서 저력을 보이며 '음색 퀸' 면모를 입증했다. /뉴시스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